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11～27, 2005. 4.

지구촌화와 대학생들의 지리적 지식에 관한 연구*

주경식**

A Study on the Globalization and World Geographic Knowledge of University Students*

Kyung-Sik Joo**

요약 : 본 연구는 지구촌화 시대에 장래 한국의 지도층이 될 대학생들의 지리적 지식과 선호도 특성을 알기 위하여 수행한 것이다. 대학생들의 지리적 지식을 조사하는 것은 첫째, 이들이 지구촌화시대의 지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앞으로 지리적 지식을 가장 많이 사용할 집단이라는 것과 둘째, 세계지리 지식은 한국과 같이 가공무역, 수출지향 산업 활동을 하는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므로 그들이 갖는 지리적 지식과 선호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는 한국교원대 학생들 약 90여명(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대학생들에게 먼저 세계지도를 그리도록 하고, 이어서 자기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10개를 세계지도 상에 표시한 후 그 이름을 쓰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세계지도의 정밀성과 표시한 나라들의 위치에 대한 정확도를 기준으로 점수화하였다. 학생들은 이 작업을 진지하게 수행하였고,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한 편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려진 한국 대학생들의 인지지도의 특성을 일본의 사례와 비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대학생들의 세계지리 지식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63% 정도의 점수를 얻었다. 특히, 50-80%에 해당하는 급간의 빈도는 무려 87% 이상을 보여, 중간 상위 구간의 점수에 빈도의 대부분이 집중되었음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세계 지리적 지식의 평가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사실에서 인지도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들이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우연적, 주관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됨을 알 수 있다.

2. 한국 대학생들이 그린 세계지도의 특성에는 고등학교까지 학교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은 상당히 자세한 세계 지리적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이 그린 세계지도의 윤곽의 특성은 대체로 지리부도에 실린 지도를 많이 닮고 있었다. 이는 일본 학생들의 인지지도가 주로 자기네 나라만을 자세히 그린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세계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3.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제1위로 여행을 선호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이는 독도 문제로 인해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 일본은 한국 대학생들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나라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같은 동아시아의 중국문화권에 속한 나라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근린의 감정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4. 제2위의 여행 선호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여기에도 우리와 같은 태평양 연안 국가라는 것과 영어

* 본 연구는 2004년도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계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2nd Colle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sjoo@knue.ac.kr

권의 선진 국가라는 것, 지도에 표시하기 쉽다는 점 등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위의 여행 선호국은 영국이었다. 대학생들의 제4위 여행 선호국은 미국으로 예상보다 아주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특히, 그동안의 한미관계, 미국으로부터의 영향,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미국과의 협조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선호도는 상당히 왜곡되어 의도적으로 낮춰진 결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세계지리적 지식, 인지지도, 선호구조, 인지지도 평가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university students' acqui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world geographic knowledge and preference structure in the globalizing age. In the first, the importance of the study is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are representative leading group who will use the geographic knowledges frequently in the future. And the secondly, world geographic knowledges are needed absolutely under the processing trade and the export oriented trading system in Korea. So, we need to understand the university students' preferenc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 knowledges. For the study, Students were requested to draw the world map and mark 10 countries on the cognitive map in the order of likely to travel.

The mental maps were assessed for the accuracy of the map outlines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countries with 10% intervals. The attributes of the cognitive(mental) maps were compared to the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on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student's geographic knowledges showed the high level of accuracy. The mean score of the students was 63%. Almost 87% of the frequencies of points were concentrated in the range of 50-80 per cent classes. This means that the differences among the points would not be so great. And the points distribution implies that the assessment of cognitive maps will be more important for the subjective and occasional factors than the objective ones.

2. The cognitive maps of Korean students were strongly affected from the studies in highschool class because they drew the similar maps outlines guided by School Atlas. In the contrast this, Japanese students drew their country of Japan with enlarged and detailed images.

3. Korean students most like to travel Japanese firstly favored. This means that Korean students feel the good emotion with Japan before the breaking of dispute to Dokdo islands. That means the Korean students feel the Japanese as a member of the chinese culture area and the neighborhood in the Far East Asia.

4. The second favor travel country is Australia, and the third is Great Britain. Both of them are easy to mark the positions. The U.S was selected as the fourth favored country to travel which has the low position to be expected order. We can interpret for the American ranking, there might be an intention to lower the position.

Key words : world geographic knowledge, cognitive map, preference structure, assessment of cognitive map

I. 서 론

현대사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는 아마도 세계화(globalization), 정보화(information), 탈근대화(post-modernity) 등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일견 각기 다른 독립적인 기능과 특성으로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서로 뗄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현상으로서 사회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특성을 비공간적인 것만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들과 관련된 공간적 측면의 변화는 지리학자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기능과 특성 변화가 공간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면서, 결국은 지리학과 지리교육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위의 개념들은 세계적 규모의 활동영역 확대,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불균등한 정보의 흐름, 모든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지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 및 그에 관련된 기능을 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세계지리교육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Hardwick과 Holtgrieve(1996)는 이와 같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세계화 시대에 너무나 부족한 지리적 지식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플로리다 대학의 지리과 학생들이 마이애미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지리적 문맹의 정도를 대변하였다. 또한, 앞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리적인 지식은 아주 중요하며 꼭 필요하다"고 약 90%의 응답자들이 대답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미국 정부는 지리를 5대 중요 과목의 하나로 정하고 실제적인 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리학계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리를 평가하며, 어떻게 하면 문맹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일상 생활화하는 지리교육과 그를 위한 18개 지리교육의 기준들과 5개의 기본개념을 선정하여 지리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 이론적 배경

지리적 지식은 현대의 생활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 예로 현대인의 아침 일과를 살펴보자. 그는 일어나서 지역의 정보와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대충 오늘의 할일을 생각한다. 이어서 통근할 도로의 교통사정과 걸릴 시간을 예측한다. 특히 오늘은 어떤 NGO들이 어디에서 캠페인과 데모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는 삶의 질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 특산물을 조리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며 계절의 감각에 맞는 옷을 입고 치장을 한다. 대략 오늘 할일의 순서를 정하고 일터를 향해 집을 나선다. 자동차 운전 도중 옆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최근에 나온 차량임을 확인하고 그 가격을 어림잡기도 하고 출근 전에 예측했던 교통상황이 적중했음을 즐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지리적 지식과 정보는 역사 이전부터 인류 생활의 정보로 중요시 되어 왔다. 암각화 또는 점토판에 새겨진 지역 생활정보(사냥감, 낚시터, 과일 등의 생필품 분포, 사냥 때의 공동작업, 사냥후의 축제)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조상들이 광범위하게 지리적 지식을 수집·기록·이용해 왔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덤 속에 그려진 벽화에서 우리는 지리적 지식들이 광범위하고 상징적으로 이용되어 왔음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역사적으로 지리적 지식을 잘 수집하고 응용한 지도자들은 국력을 튼튼히 하고 문화를 발달시켰으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회에 활력을 주었던 사람들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Globalizing era, Information age로 불리는 시대로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여러 움직임들은 지리적 지식에 대한 양면성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한 측면은 세계적인 스케일에서 여러 지역의 지식을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알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보다 더 많은 지리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적 지식은 당초에 지리학자들이 염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전보다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다. Perrons(2004)는 현재 지역적 정보가 더욱 중요시됨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특성인 확장성(Expandibility), 격차증대(Increasing Difference),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 비경쟁성(Nonrivality), Weightlessness(경량화) 등을 들었다. 그는 사회 변화의 원인을 정보통신, 교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량이 급증하고 먼 거리까지 생활공간이 확장·재조직되는 것에 의한 것으로 보고, 현대는 보다 광범위하게 특정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사회 계층이 양극화됨에 따라 특정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현상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고 거기서 지역의 성격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이 질적 양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따르는 경향은 경계선이 갖는 제약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글로벌화 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변화는 경계선 안쪽의 지역 특성과 지역적 기준이 강화되는 Localization의 움직임도 훨씬 강화시키고 있다는 이

율배반적인 결과도 나타낸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의미를 주지만, 그 개념의 파악에도 아직은 많은 혼란이 따름을 보여준다. 또한 세계적인 기준이 되는 대부분의 생활양식과 현대문명 및 그에 관한 첨단기술 등은 비물질적인 것이 주종을 이루고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중량화된 제품이 대부분이다. 즉, 이것은 아주 소형이거나 아주 가벼운 것들이 문화라는 포장을 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특정인의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비경쟁성도 개성화를 이끌면서 지역의 특성을 더욱 중요한 지식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화와 정보화, 공간마찰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리학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전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리적 지식, 지역적인 지식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중요시 되고, 활용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즉, 광범위하게 사람·정보·물자가 이동되면서 어떤 경우는 직접적 이동이 없이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얻어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함께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네트워크 사회, 지구촌 사회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감지한 세계의 여러 나라는 정보화 시대에서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리교육, 특히 지역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으로 지리과목을 중요 5대 과목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Globalization을 지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육정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지리교육은 현지에 가서 지리는 물론 사회·문화를 배우면서 활동하여 장차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지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리교육의 필요성을 현대 미국 젊은이들의 지리적 문맹을 들어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가라 할 수 있다.

Piaget 이래 인지발달에 대한 논의는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비공간적인 지능과 지식의 형성 및 발달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공간적 환경에 대한 인지특성은 지능을 가진 동물들의 행동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즉, 환경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추상화하고, 다시 회상하는 여러 과정은 인간의 인지발달 단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인간의 지적 능력의 모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환경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각자의 지식은 일상생활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보다 정밀하게 파악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갓 대학에 입학한 freshmen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지리적 지식을 평가하였다. 대학 신입생들은 장래의 우리나라 주요 엘리트층으로 상당한 정도로 지역지식을 활용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층이다. 또한 이들을 통한 평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지리적 지식을 검사하는 것과도 아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들은 전공에 대한 편견도 적고, 연령적으로도 등질적인 대학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대학생들의 지리적인 지식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의의를 가지므로, 평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단답형문제나 객관적 4,5지 선다형으로 대학생의 지리적 지식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지식은 사람마다 직간접적 경험과 성장·활동의 장소 및 배경에 따라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며, 대학생들은 그 사회의 청소년층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적 정보나 지식을 객관식으로 평가할 때에는 일반성과 타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다. 그 이유는 공간 환경에 대한 정보와 평가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습득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는 주관적 선호도, 가치관, 문화적 배경, 소속된 계층, 성장 환경 등에 따라 의미부여, 중요도, 평가관, 장소적 의미에 대한 해석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들을 무시한 객

관식 평가는 제대로 그 평가 대상자의 공간적 경험 세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어서 타당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사람마다 독특하게 획득·이용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인지와 그에 관한 지식의 평가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분석·기술되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지도로 그리게 하여 선호국가에 대한 정보의 표현상의 정확도, 지도에 표시한 국가의 개수와 공간적 정보의 정확성을 기초로 인지지도를 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첫째, 학생들이 그린 세계지도에 대해 "세계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였는가?"에 대해 평가하였다. 둘째, "세계지도 상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고 "그들 국가에 대한 공간적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점수를 기초적 통계로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은 대체로 대학교 1학년 교양과정 과목상의 학생들로[1] 무척 다양한 전공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학생들은 30분 이내에 한국지도와 세계지도를 그리도록 요구 받았다.[2] 학생들은 자기가 그린 세계지도에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12곳을 순서대로 표시하고 순서에 맞는 국명을 기록하게 하였다. 여기서는 세계지도와 국가들에 대한 자세함과 형상의 정밀성, 위치정보의 정확성 등을 평가하여 1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즉, 세계지도는 형태, 방위, 거리, 위치 등의 지리적 요소들의 정확성이 평가되어 점수에 반영되었다. 이런 과정상의 절차를 거쳐서 대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이미지는 세계지리에 대한 지식으로 평가되었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선호도는 그들의 선호경향을 이해하고 평가하여 기술하였다.

학생들의 선호도 평가에는 개인의 기호와 정보량이 강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국가 또는 비교적 잘 알거나 늘 그 국가의 정보에 접할 수 있는 나라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학생들이 선정한 국가의 순서는 현재 Globalizing process에서 접하는 정보의 다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 순서를 분석하는 것에 의하여 대학생들이 얼마나 globalization에 관한 mind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평가의 과정을 통하면 대학생들의 지리적 지식에 globalization이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지도 상에 나타내는 국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가치체계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그리기 쉬운가?"에 대한 것으로, 선호도와는 상당히 달리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그 나라의 중요성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에서 얼마나 그 나라를 잘 그릴 수 있는가?"가 선호도 점수에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런 왜곡 요인에 의한 점수와 관련하여 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나라들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3]

이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필자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들의 세계 지리적 지식을 평가하고 기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관적인 지식에 대한 평가가 큰 폭으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II. 대학생들의 세계 지리적 지식

1. 대학생들의 지리적 지식 평가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세계 지리 지식은 상당히 낙관적인 편이었다. 그들이 그린 세계지도에는 정밀한 세계 지리적 지식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린 세계지도의 평가에서, 그들의 점수 분포는 짧은 시간에 그렸지만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 세계지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들의 평가는 총 10점 만점으로 하여, 지도요소와 위치적 균형, 실제윤곽에의 일치정도 등에 따라서 평가하였다. 학생들의 점수분포는 5-8점대의 범위에 분포한 점수의 비율이 무려 87%이상을 차지하여, 거의 대부분이 이 점수대에 분포한다 할 정도로 우수한 편이었다(표 1).

위 표에서 점수의 평균은 6.3점이고 대체적인 점

표 1.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세계 지리적 지식에 대한 평가점수 분포

구분 \ 계급	2점 이하	3-4점	5-6점	7-8점	9점 이상	합 계
빈 도	0	7	42	34	4	87
비율(%)	0	8	48.3	39.1	4.6	100
누적합계비율	0	8	56.3	95.4	100.0	100

수의 범위는 3-10점 사이로 2점 이하의 점수분포는 없다. 그러나 평균점수 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비율이 56%를 점하고 있고, 분포의 모양도 5-8점 사이의 점수분포가 전술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전체의 87%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5.5점으로 대표되는 급간의 빈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점수의 분포는 정상적인 분포를 보이지 못하고 정의 왜도를 가진 비대칭적모양의 분포패턴이다. 따라서 점수의 분포상태는 왼쪽으로 치우친 모양이다. 또한 점수 분포 상태에서 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폭이 좁고 높이가 높아서 높은 첨도를 나타낸다. 이는 점수의 분포 범위가 좁다는 뜻으로 학생들 간의 점수차가 적다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여 대학생들의 지리적 지식의 점수가 비슷함을 의미하며, 특히 높은 점수나 특히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점수를 받은 대학생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4)]

따라서 세계화의 진행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고, 특히 세계지리학습의 효과, 매스컴의 영향, 인터넷의 발달, 해외여행의 자유화 등으로 많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해 비교적 고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화, 지구촌화 경향이 강한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대외관계가 필수적인 나라의 대학생들이 갖는 바람직한 세계 지리적 지식수준과 응용에 있어서 올바른 경향이라 할 수 있다(이런 성적 분포는 이들 대학생들이 한국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점수보다는 높은 편이다. 한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평가한 경우 평균은 5.7점이었고 점수 분포의 빈도는 5점과 6점이 모두 27명으로 나타났다).[5)]

2. 대학생들의 세계국가에 대한 방문 선호도

대학생들에게 질문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들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학생들이 반응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별, 대학별, 개인별로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1) 한국 대학생들의 제 1위 선호에 대한 분석과 해석

대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여행하고 싶은 나라의 순위에 대한 분석에서는 먼저 대학생들이 제1위의 선호도로 표시한 나라들을 조사하였다(표 2). 즉 가장 가고 싶은 나라(제1위)로 제일 많이 선택된 나라(최다)는 일본으로, 전체 87명 중에서 17명이 일본을 선택하여 그 비중은 전체의 19.5%나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18.4%), 영국(9.2%), 미국(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3국은 공동 5위로서 각각 6.9%씩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의외의 결과는 뉴질랜드의 선택으로 환태평양 블록에 속해 있다는 장점과 표시하기가 쉽다는 장점 외에 목가적인 전원적 생활, 영어권 등의 매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중국과 캐나다는 우리와의 관계도 아주 밀접하고 상호작용도 활발한 국가들로 학생들의 선택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나라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8위로 많은 대학생들이 제1위로 좋아하는 나라는 스위스로 알프스의 경관, 목가적인 생활, 높은 생활수준, 관광국가 등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데 작용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이태리・독일・인도・이집트가 각각 2표씩을 얻었고, 프랑스・스페인, 터키・핀란드・브라질・헝거리・러시아・괌이 각기 1표씩을 얻어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의 순위는 낮지만 그래도 제1위로 선호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호도 분포경향을 분석해 이들이 갖는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 주위의 국가들인 일본과 중국의 선택이 비교적 높았다. 이는 동부아시아의 한자문화

표 2. 한국대학생들이 제1위로 선호하는 국가들에 대한 선호구조(제8위의 국가까지: 70/87)

순 위	국가이름	선 호 도	비율(%)	누적비율(%)	총계=70 / 누적비율	비 고
1	일 본	17	19.5	19.5	24.3 / 24.3	큰 비 중
2	오스트레일리아	16	18.4	37.9	22.8 / 47.1	급 증
3	영 국	8	9.2	47.1	11.4 / 58.5	증 가
4	미 국	7	8.1	55.2	10.0 / 68.5	증 가
5	중 국	6	6.9	62.1	8.6 / 77.1	증가 급락
5	캐 나 다	6	6.9	69.0	8.6 / 85.7	증가 정체
5	뉴질랜드	6	6.9	75.9	8.6 / 94.3	증가 정체
8	스 위 스	4	4.6	80.5	5.7 / 100	약 증
비고	-	70	-	80.5	- / 100	-

권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로 한국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결과라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싫어하면서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일본이 선호도에서 가장 많은 17표를 얻은 것은 우리 학생들의 양면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우리에게 피해를 주어서 싫은 나라지만, 인접한 이웃으로 배워야 할 점이 많음을 시인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필자가 일본 대학생들을 사례로 수행한 동일한 연구의 1차적 분석에서도 제1순위의 가보고 싶은 나라가 한국라고 적시한 일본 학생은 전체 124명 중에서 14명(약 11.3%)이었다. 이는 약 10년 전만 하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선호도로 일본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전에는 한국이 싫어하는 나라 선택에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었다). 이와 같은 변화 이유중의 하나는 우선 이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대학이 한국교원대학교와 자매결연으로 대학생 및 교수들의 상호교류가 빈번한 죠에쓰(上越)대학이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다음의 이유로 현재 일본에서 일고 있는 한류(韓流)라는 강한 문화적인 움직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관과 사람들의 행동 및 마음 씀씀이, 또는 화제가 되는 이야기의 전개과정 등이 수년 전의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낯익은 것들이라는 데서 오는 반응이라고 하지만, 일본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유행 내지는 사회적 신드롬 속에서 일본 대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면 그것은 아직도 약한 반응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아주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6)]

둘째, 한국 대학생들의 선호 특성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높은 선호도를 보여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이유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즉,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 지역으로서 태평양연안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호기심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환태평양 블록(Pacific rim countries block)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세계지도 상에서 그려 넣기가 매우 쉽고, 국가명도 쉽게 알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점수에 대한 고려를 많이 했음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실제로 환태평양 블록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주 높은 정보발달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추세에 잘 어울리는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지리적인 선호도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순위가 매우 높아서 영연방과 영국문화를 갖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고 호감도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호기심과 높은 선호도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과 무관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의 상호작용을 실제로는 강화하면서도 선호도로는 낮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해 한국인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은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선뜻 가장 선호하는 여행국으로 꼽기는 싫은 나라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다.

넷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데, 이들은 아직 덜 개척되어 원시적인 상태의 경관이 많고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선호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신대륙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펼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다.

다섯째, 위의 나라들이 높은 선호도를 갖는다는 것은 문명이 발달되고 잘 사는 곳, 유럽문화가 보급된 곳에 대한 상당한 동경과 긍정적인 평가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물질문명이 발달된 풍요로운 곳으로, 한국대학생들은 그와 같은 지역에 대한 강한 호기심・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국가상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국가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제1위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래 지도자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외부의 장점에 대한 평가는 우리 대학생들이 이미 건전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그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이 과거와 다른 청년대학생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자세가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의 세계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질적 수준으로 "얼마나 그들을 잘 알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

한편으로 이런 경향을 나쁘게 평가하면 잘사는 지역이나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심 또는 호기심이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을 잘 파악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교육에 응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한국교원대 학생들이 일반대학의 학생들의 경우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교원양성대학 내지는 사범대학생들이 갖는 특성이 강하게 표출된 결과로서 장차 바람직한 교사상의 형성에 지리정보의 활용이 결정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대학생들의 제 2위 선호에 대한 분석과 해석

제2위로 여행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평가 순위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나라는 제1위의 선호도 구조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선택을 보였다는 것이 특이하다. 제2위로 선호한 나라들을 집계한 것이 표 3이다. 그러나 낮은 선호도를 보인 기타의 나머지 국가군에서는 제1위 선호도 구조와 상당히 다른 선호구조(Preference structure)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제1위의 선호도와 제2위의 선호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몇%의 비중을 갖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1위의 선호도와 제2위의 선호도 사이에는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제1위와 제2위 사이에는 단지 1점의 차이만이 존재할 수도 있고, 9점의 점수차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평가가 주관적인 평가이고, 등간척도나 비율척도가 아닌 서열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7)]

제2위의 선호도에서 높은 빈도(다수)를 차지하여 학생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이다. 이는 우선 대학생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꼭 알고 싶은 국가들로 그 대상이 거의 정해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나머지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국가는 아주 다양한데, 이는 개인별로 선호도의 차가 큼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선호도를 보인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라 할 수 있다.

제2위로 선호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이 나라는 제1위로 선호한 국가들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한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일본을 먼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호주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프랑스가 일본을 앞질러 제2위로 선호한 나

표 3. 한국대학생들이 제 2위로 선호하는 국가들에 대한 선호구조(제1위의 선호국 숫자와 유사. 제 8위까지가 70개국이나 여기서는 11위까지 계산하였다.)

순 위	국가이름	선 호 도	비율(%)	누적비율(%)	총계=72 / 누적비율	비 고
1	오스트레일리아	16	18.4	18.4	22.2 / 22.2	큰 비 중
2	프 랑 스	11	12.6	31.0	15.3 / 37.5	급 증
3	일 본	10	11.5	42.5	13.9 / 51.4	급 증
4	중 국	6	6.9	49.4	8.3 / 59.7	고수준 증가정체
4	미 국	6	6.9	56.3	8.3 / 68.0	고수준 증가정체
4	뉴질랜드	6	6.9	63.2	8.3 / 76.3	고수준 증가정체
4	캐 나 다	6	6.9	70.1	8.3 / 84.6	고수준 증가정체
8	인 도	3	3.4	73.5	4.2 / 88.8	저수준 증가정체
8	영 국	3	3.4	76.9	4.2 / 93.0	저수준 증가정체
8	이 태 리	3	3.4	80.3	4.2 / 97.2	저수준 증가정체
11	괌	2	2.2	82.5	2.8 / 100.0	미 증
비고	-	72	-	82.5	/ 100.0	-

라 중에서 빈도 상 제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나쁜 인연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그래도 서구의 열강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의 나라들 중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이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프랑스의 문화적 지향성, 미국에 대항하는 자세, 우리나라의 반미 감정, 고속전철을 비롯한 기술적인 유대관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의 문명의 장점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 등이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선호도는 순위별로 해석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순위에 대한 분석과 해석도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인도, 이태리, 괌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상이한 이유로 제2위로 가보고 싶은 나라들로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도는 발달된 아시아의 고대문화국가로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인 불교와 관련되어 있고, 이태리는 반도국, 로마문화, 첨단적인 패션문화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3번째로 가보고 싶은 나라의 순위를 보인 것이다. 특이한 것은 2번째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이 오스트레일리아였는데, 3번째의 경우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13.8%). 따라서 가장 높은 빈도의 선호도를 보인 나라는 전체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이다." 라는 말과 같다.

제3위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서 2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나라는 영국이고(12.6%), 3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나라는 일본과 중국으로 각각 10.3%의 선호도를 보였다. 제3위의 선호도 중에서 5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로 각기 8%의 선호를 보였다.

그 외에 특이한 나라가 있다면 러시아(4.6%), 멕시코(2.3%), 이집트(2.3%)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라들은 제 3위에 가서야 약간의 선호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선호도로 globalization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과 비교할 때 너무 낮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하겠다. 또한 멕시코나 이집트의 등장은 한국대학생들의 고대문명인 Aztec이나 Egypt 문명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중심의 현대적인 상호관계 속에서도 문화중심의 순수한 관계를 고려하는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잘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순위 구분 없이 국가별 선호도를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이 순위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 사실들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합산한 것이므로 해석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표 4. 한국대학생들이 제3위로 선호하는 국가들에 대한 선호구조

순 위	국가이름	선 호 도	비율(%)	누적비율(%)	총계=72 / 누적비율	비 고
1	오스트레일리아	12	13.8	13.8	15.8 / 15.8	낮은 비중
2	영 국	11	12.6	26.4	14.5 / 30.3	급 증
3	일 본	9	10.3	36.7	11.8 / 42.2	급 증
4	중 국	9	10.3	47.0	11.8 / 53.9	급증 정체
5	미 국	7	8.0	55.0	9.2 / 63.1	급 증
5	캐 나 다	7	8.0	63.0	9.2 / 72.3	고수준 정체
7	러 시 아	4	4.6	67.6	5.3 / 77.6	고수준 정체
8	독 일	4	4.6	72.2	5.3 / 82.9	고수준 정체
9	프 랑 스	3	3.4	75.6	3.9 / 86.8	증가 정체
9	이탈리아	3	3.4	79.0	3.9 / 90.7	증가 정체
9	뉴질랜드	3	3.4	82.4	3.9 / 94.6	증가 정체
12	멕 시 코	2	2.3	84.7	2.7 / 97.3	미 증
12	이 집 트	2	2.3	87.0	2.7 / 100.0	미 증
비고		76		87.0		

표 5. 한국대학생들의 종합적인 선호국가 구조(1, 2, 3위 종합/구분 없는 합계)

순 위	선호 국가이름	선 호 도	비율(%)	누적비율(%)	비 고
1	오스트레일리아	44	20.2	20.2	높은 비중(실제 방문 2위 가능성)
2	일 본	36	16.5	36.7	비중 급증(실제 방문 1위 가능성)
3	영 국	32	14.6	51.3	비중 급증(실제 방문 3위 가능성)
4	중 국	21	9.6	60.9	비중 증가 감소(실제 방문 5위 가능)
5	미 국	20	9.1	70.0	비중 증가(실제 방문 4위/1위 가능)
6	캐 나 다	19	8.7	78.7	비중 증가(실제 방문 5위 가능)
7	뉴질랜드	15	6.8	85.5	비중 약증(실제 방문 5위 가능)
8	프 랑 스	14	6.4	91.9	비중 약증(알 수 없음)
9	이 태 리	6	2.7	94.6	미약한 비중 증가(알 수 없음)
10	스 위 스	4	1.8	96.4	비중 미증(실제 방문 8위 가능)
10	러 시 아	4	1.8	98.2	비중 미증(알 수 없음)
10	독 일	4	1.8	100.0	비중 미증(알 수 없음)
비고	-	219	100.0	100.0	

왜냐하면 종합순위가 제1위의 선호도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종합적인 순위는 단지 "어느 나라들을 많이 선호하는가?"에 대한 단순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니고,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정도의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종합순위가 제1위는 오스트레일리아로 20%정도의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에 근거해서 가장 먼저 한국의 대학생들이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를 방문한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주관적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의 제한사항이다.

제2위는 일본으로 16%정도의 선호도를 보였으나 가장 많은 학생들이 먼저 방문할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역사적인 감정 등의 제약이 있지만 그들의 제약 하에서도 가장 먼저

선호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제3위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나라는 영국(14.6%)으로 중국이나 미국보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영국을 방문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계속하여 방문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면 그 때는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일 수 있다. 4위의 중국과 5위의 미국은 높은 선호도는 아니지만 방문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 이는 두 나라가 한국의 우방이라는 점과, 남북 분단,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 실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국가 라는 측면에서 나온 추론이다. 그런 면에서 낮은 선호도임은 마찬가지이나 캐나다를 방문할 가능성도 실제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아래의 낮은 종합적 선호도를 보인 나라들은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인데 이들은 종합 선호도도 낮고 실제로 제1위로 방문할 가능성도 낮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대한 선호도는 아주 낮아서 종합적으로도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 선호도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고 심리적, 사회적인 거리와 문화특성 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인지지도의 연구에서는 인지거리가 실제 거리 보다 더 중요함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지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유산을 전시한다든지, 국제행사에서 그쪽 지역을 소개한다든지, 매스컴에 홍보하는 등의 행사가 중요하다.

III. 대학생들의 지리적 지식과 인지지도

1. 인지지도의 특성과 평가

사람들에 의해 인식된 장소의 차이가 실제 사람과 물자와 정보의 유동을 가져오게 한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정보에 기초한 '인식상의 필터'를 통한 입지적 의사결정을 한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고 Gould와 White는 주장한다.

인지지도에는 대학생들이 "어떤 지역을 중요시하고, 어떤 사항을 중요시 하는가?"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그린 인지지도의 특성을 해석하고, 그 인지지도가 그려지게 된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장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물론 이것은 모두가 주관적 심리적 과정이므로 그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부여는 새로운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인가? 대학생인가? 중류층의 직업인인가? 하류층의 노동자인가 등에 따라서 그려지는 인지지도의 정밀도와 범위, 추상성과 중심적인 강조 장소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대학생의 인지지도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고도의 추상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지도를 그릴 때에도 대학생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여 해석해야 한다.

본래 인지지도는 발전 단계적으로 점→선→망→지역과 같은 기하학상의 요소를 생각해 왔다.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구조적인 접근에서 Lynch는 Path, Edge, Node, District, Landmark등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장소, 자기가 살고, 주로 활동하는 장소를 비교적 자세히 그리며, 그들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지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주 활동무대에 대한 과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자주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자기의 활동무대에 대한 정보들 중에도 방향과 거리는 상당히 왜곡되어 나타났고, 그것도 어떤 임계치를 지나면 급격한 정보의 손실이 거리에서 일어나 실제보다 축소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선호도 평가에서는 앞의 요소들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 지역이나 장소가 선호되는가를 밝히고, 비율과 이유, 해석 등을 시도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왜 그런 장소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경험과 심리적인 영향이 관련되고 있고, 학습의 효과가 작용한다는 면에서 구조적 연구보다도 지리교육 측면에서 훨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생들이 그린 인지지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가장 정밀하고 전체 지(구)도의 중심에, 가장 근접한 비율의 크기로 나타낸 곳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중국 등이 포함된 동부

아시아 지역이었다. 이는 가장 자주 접하는 지리적 정보가 동부아시아 지역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령 매스컴에서 일기 예보를 할 때에도 동부아시아 지역의 지도는 대체로 등장된다. 또한 한국지리를 공부할 때에도 늘 주변의 상황과 정보에 대한 것을 접하기 때문에 동부아시아 지역은 자세하게 그려질 수 있는 곳으로 파악된다.

둘째, 비율적으로는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2 번째로 정밀한 지도가 그려진 지역은 북아메리카대륙이었다. 미국에 대한 정보는 많은 편이지만 여행하고 싶은 나라의 순위에서는 하위로 밀린 것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즉, 정보에 비하여 대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율배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실제 가보고 싶지만 표현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로 나타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체로 생략된 정보로 그려지지만 가끔 정밀함을 보이는 지역은 서부유럽 지역이다. 이런 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부분, 그리기 쉬운 부분 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서남쪽으로 대체로 4각형의 조그만 대륙을 그리면 되는 것이 높은 선호도에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친자연적 개발과 보존, 발달된 서구문명의 감각, 영어권, 높은 생활수준 등은 모두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는 데 작용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대학생들은 자기가 선호하고 많은 정보를 갖는 지역은 비교적 과장하여 확대된 지도를 그리는데 비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오히려 실제보다 축소하여 지도를 그리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는 이미 선호도 연구에서 밝혀진 먼 거리의 지역은 과소평가한다는 공간인식의 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거리의 효과에서 먼 거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고 인식된 거리, 심리적인 사회거리 등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자기가 학습하거나 활동한 환경, 극한적인 경험과 환경의 제약, 교육과 활동을 계속한 시간 등이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대표적인 한국 대학생 인지지도의 해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인지지도들 중에서는 평가점수도 높고 동시에 정밀한 인지지도를 그린 대학생이 있는가하면, 인지지도는 잘 그렸지만 선호하는 여행국의 표시를 잘못하여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학생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대충 세계지도를 그리고 몇몇 생각나는 나라의 이름을 쓴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런 경우는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진지하게 세계지도를 그린 경우는 여행선호국의 위치를 잘못 그렸어도 상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의 중심은 세계지도의 정확성에 더 큰 비중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비교적 과장하여 그린 곳은 동부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순이었고, 과장된 지역의 지도는 정밀도에서도 축소된 지역보다 훨씬 잘 나타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그린 세계에 대한 인지지도는 대체로 초중 고등학교의 사회과(지리)부도에 실려 있는 지도들과 아주 유사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세계 지리적 지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세계지리 학습이라는 것과 지리부도가 세계지역의 이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도표현이 다른 곳에 비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한국지리 학습과 매스컴의 영향이 세계지리 지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KA의 경우는 유럽 대륙을 스칸디나비아 반도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로 아시아나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보다도 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런 왜곡에 비하면 한국·일본·중국의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하여 비교적 상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행 선호국가로는 각각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이 대학생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일부러 여행선호국의 순위를 낮게 조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에서 떼어서 그린 것도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KB의 경우는 유럽을 자세하게 그려서 아주 잘 인

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윤곽과 규모의 비율이 비교적 정확히 잘 나타나 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남, 북 아메리카 부분이다. 따로 구획선을 그려서 나타냈지만 규모가 너무 작게 그려지고, 윤곽 또한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나 동부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아라비아반도 등이 아주 상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8] 이런 면에서 이 대학생의 세계 지리적 지식의 점수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바람직한 인지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자기가 방문하고 싶은 나라들을 제대로 나타내지는 못했다.

KC의 경우는 너무나 축약적인 세계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이 인지지도에는 생략된 정보가 너무 많고 잘못된 부분도 많아서 지도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방문하고 싶은 나라들과 도시들을 충분히 나타내서 평가점수는 높은 편이다.

이 지도는 다른 대륙에 비하여 특히 북아메리카 대륙을 잘 표현하고 있고, 지리적 정보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방문하고 싶어 하는 순위는 낮은 편으로 3위까지의 집계에서 미국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것도 미국의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게 표현한 경우의 하나이고, 아프리카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에서 분리시켜서 그리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유럽에 대한 지리적 정보도 낮은 편이지만, 방문선호 국가의 위치와 국가명은 여러 개를 잘 표현하고 있었다.

3. 일본 대학생들의 인지지도

일본의 대학생들에 대한 인지지도는 2005년 2월에 조사·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지도에 대한 특성만을 간략히 정리하고 한국의 대학생들과 비교한다. 연구의 대상이 된 죠에쓰 교육대학은 동해에 면한 일본의 중부에 위치한 대학이다(필자는 "지역 역사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도시경관의 특성과 변화'에 대하여 발표한 적이 있어서 그 곳의 학생들에게 구면이었고, 협조도 비교적 잘 되었다). 여기서는 일본 대학생들이 그린 세계지리 인지지도 중 가장 특징적이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3개 골라서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JA는 적도를 중심으로 세계를 그린 학생의 인지지도로 중요한 지리적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지도를 통하여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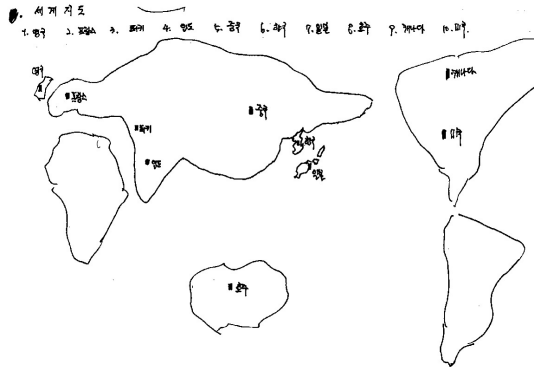


그림 1. 한국대학생의 인지지도(KA): 잘그린 것(한국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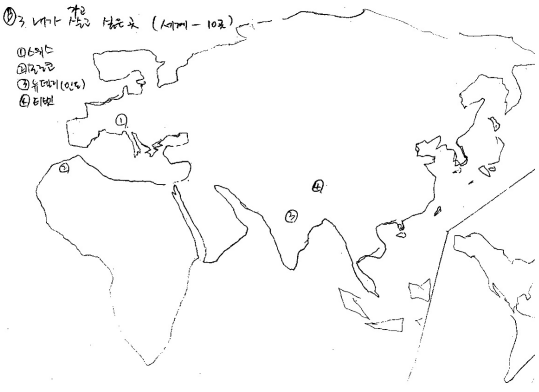


그림 2. 한국대학생의 인지지도(KB): 잘 그린 것/아메리카대륙을 축소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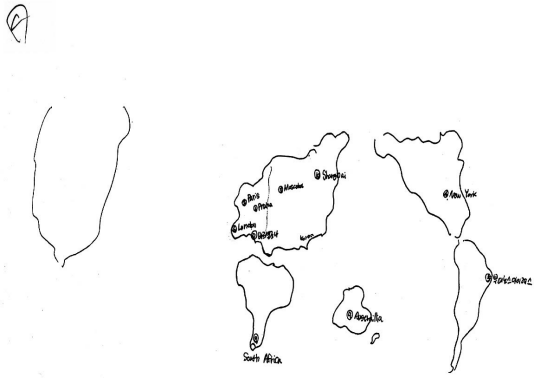


그림 3. 한국대학생의 인지지도(KC): 왜곡된 것 (아프리카, 그린랜드)

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적도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그린 것도 그렇고, 유럽 대륙과 시베리아, 남북 아메리카 대륙들의 윤곽과 그리는 방식이 상당한 훈련을 통해 습득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일본 학생이 가장 자세하게 그린 곳은 역시 동부아시아 특히 일본열도와 한반도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생들과 같이 자기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을 자세하게, 지도의 중심에 그린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의 활동 공간이 인지지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국은 영국이 1위, 2위가 미국으로 한국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순위는 4위로 본 연구에서는 4위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순위로 특성을 기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이다.

JB의 경우는 지리적인 요소가 많이 왜곡되어 있어서 잘 그린 인지지도는 아니다.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일본의 지도는 자세하게 잘 그렸지만 다른 장소는 아주 왜곡되거나 생략되어 그 정보를 읽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지도는 한국학생들보다 훨씬 못한 점수를 받게 된다. 이 학생이 그린 각각의 지리적인 대상물들의 위상적 위치는 대체로 맞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위치 면에서 왜곡이 아주 심한 편이다. 그러나 선호국은 3위로 랭크되어서 친근감을 나타내고는 있다.

이 인지지도의 특성 중 특히 재미있는 것은 제1위 선호국인 영국은 무척 확대하여 그렸고, 제 13위인 인도네시아는 아주 축소시켜서 섬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왜곡의 특성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이는 일본의 상대국들이 주로 선진국들이라서 그 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자세하고 친근하게 전달되었다고 해석된다. 이 학생의 경우도 2위의 여행 선호국은 프랑스, 3위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선정된 것이 중요하다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은 제4위로 밀려서 논의의 밖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 학생들의 경우는 선호하는 나라가 우선은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자기네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아시아, 중동지역의 국가들이 거의 후순위로 밀리거나 빠졌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프리카지역으로 아주 축소되고 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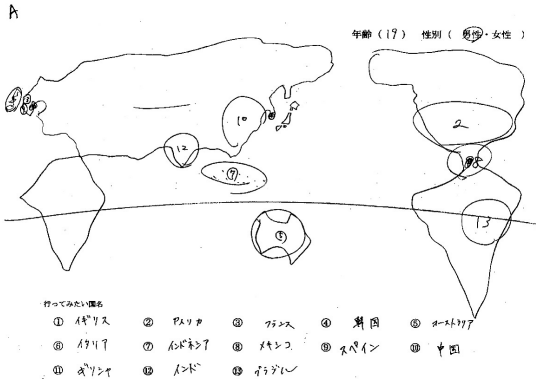


그림 4. 일본 죠에쓰 대학 남학생의 인지지도(JA; 잘 그린 사례, 적도와 대상체 윤곽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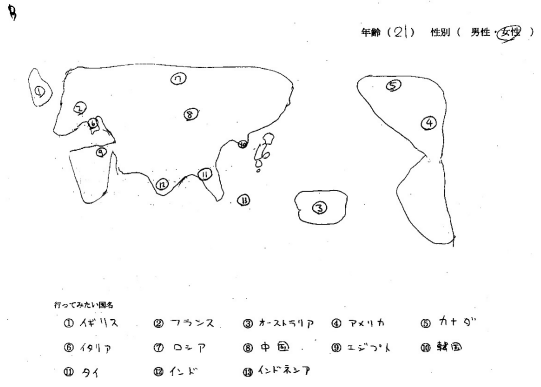


그림 5. 일본의 죠에쓰 대학 여학생이 그린 인지지도(JB; 일본을 과장하여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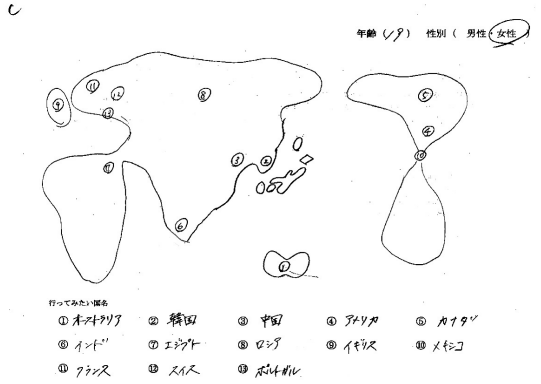


그림 6. 일본 죠에쓰 대학 여학생의 인지지도(JC; 왜곡된 것/일본을 과장시켰다)

게 왜곡되어 있다.

JC의 경우는 JB보다도 덜 정확한 세계지도를 그리고 있다. 물론 이 학생의 인지지도 역시 왜곡이 아주 심한 편이지만 지리적 요소는 상당히 잘 파악하여 그리고 있다. 이 인지지도의 특징은 첫째, 자기 나라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상당히 확대시켜서 그렸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의 윤곽을 아주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찬가지였다. 한반도의 윤곽은 아시아대륙에 붙어있는 하나의 혹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아라비아반도는 생략하고, 아프리카 대륙은 아주 왜곡되어 나타나 있다. 유럽도 생략과 왜곡이 심한데, 영국은 반대로 아주 확대되어 있지만 여행선호도는 9위로 아주 낮다. 남북 아메리카도 왜곡이 심한데, 중앙아메리카지역의 왜곡이 아주 심하다.

이 학생의 여행선호도는 그래도 생활권중심으로 그린 듯한 감이 있다. 제1위는 오스트레일리아로 한국 대학생들의 여행 선호국과 매우 유사하고, 한국이 제2위의 선호국이며, 중국은 제3위 선호국이다. 미국의 순위는 4위로 논외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눈에 띈다. 왜냐하면 거의 관련이 적어지는 유럽 국가들의 우선 순위가 멀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서부유럽국가들 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여서 상당히 실리 위주의 국가 규범에 맞는 선호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4. 인지지도를 통한 대학생의 세계 지리적 지식과 정보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생들의 세계지리 지식에 대한 평가와 인지지도의 특성은 학교교육에서 세계지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즉, 세계지리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습효과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그린 세계지도의 윤곽은 대부분이 지리부도에 실린 지도의 윤곽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지리 수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대변해 주는 것으로 지리부도의 학습효과도 크며 세계화는 세계지리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해 질 수 있는 과제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대학생이 그린 인지된 세계지도가 갖는 두 번째 특성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인 동부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지도의 중심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학생들이 학습한 효과와 매스컴의 영향이 아주 큼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현지 여행이나 국제적인 활동을 증대시키는 것이 세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학생 활동임을 잘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배낭여행, 어학연수, 테마여행, 국제 자원봉사, 단순 관광여행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한 미국, 일본, 동남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는 점차 먼 지역에 대한 지원도 증대시켜 나가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제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이나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세계에 대한 학습이 더욱 증대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와 정보화,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입각한 변화들은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들로 세계지리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장래 한국의 지도층이 될 대학생들의 지리적 지식과 선호도를 알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이다. 대학생들에게 먼저 세계지도를 그리도록 요청하고, 이어서 자기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10개를 세계지도 상에 표시하고 그 이름을 쓰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세계지도의 정밀성과 표시한 나라들의 위치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여 점수화하였다. 학생들은 이 작업을 진지하게 수행하였고,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한 편이었다. 인지지도의 특성은 일본의 사례와 비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의 세계지리 지식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63%정도의 점수를 얻었다. 특히, 50-80%에 해당하는 급간의 빈도는 무려 87% 이상을 보여, 중간 상위 구간의 점수에 빈도의 대부분이 집중되었음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세계 지리적 지식의 평가 점수가 별로 차이가 크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지도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들이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우연적, 주관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됨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의 대학생들이 그린 세계지도의 특성은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생들은 상당히 자세한 세계 지리적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이 그린 세계지도의 윤곽의 특성은 대체로 지리부도에 실린 지도를 많이 닮고 있었다. 이는 일본 학생들의 인지지도가 주로 자기네 나라만을 자세히 그린 것과 대조적으로 세계에 대한 바람직하고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우리 학생들은 담고 있었다.

3.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제1위로 여행을 선호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독도 문제로 인해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 일본은 한국 대학생들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같은 동아시아의 중국문화권에 속한 나라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근린으로서의 감정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4. 제2위의 여행 선호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여기에도 우리와 같은 태평양연안국가라는 것과 친자연적인 특성이 많은 영어권의 선진 국가라는 것, 지도에 표시하기 쉽다는 점 등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3위의 여행 선호국은 영국으로, 유럽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영어권 국가라는 것, 위치를 표시하기 쉬운 섬나라라는 것 등이 큰 영향을 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5. 대학생들의 제4위 여행 선호국은 미국으로 예상보다 아주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특히, 그동안의 한미관계, 미국으로부터의 영향,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미국과의 협조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선호도는 상당히 왜곡되어 의도적으로 낮춰진 결과로 판단된다.

제5위의 여행선호국은 중국으로, 이는 일본과 함께 우리의 근린이라는 것과 폭넓은 중국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나라임을 생각하면 그 여행선호도의 순위도 왜곡되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註

1) 교원대 전체 학생들을 위한 교양 과정인 '인간과 환경' 코스에 등록한 학생들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정은 학생들의 숫자를 100명을 단위로 제한하여 강의를 제공한다.

2) 여기에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볼 수 있는데, 그 선호도의 강도가 그들의 지리적 지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은 한국지도를 그리고 그 위에 자기가 살고 싶은 도시 10개를 순서대로 표시한 후에 그들 도시명을 순위대로 쓰게 하였다.

3) 한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강한 선호도를 보인 곳이 제주 시였는데 이는 기후의 온화함과 이국적인 정취의 영향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지도상에 제주시를 나타내기 쉬웠던 점을 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제1위의 여행 선호국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4) 한편 한국지리에 대한 지식의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점수의 분포가 5-8점대에 분포하는 학생들의 빈도가 의외로 낮은 편이었다. 여기서는 7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주로 5, 6, 7점대의 분포가 높은 비율(76%)을 차지하고 있었다.

5) 한국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그린 한반도 윤곽에 대한 점수와 도시의 위치 표시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였다. 평균은 5.7점 이었고 5, 6점대가 최빈치로서 각각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6) 여기서 평가 대상이 된 대학생들은 일본 니가타(新潟)현 죠에쓰(上越)대학의 학생 124명으로 이 대학은 현재 한국 교원대학교와 학생교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갖는 이미지에 비하여 상당히 좋게 인식되고 있다. 이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2005년 1월에 주로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한일 대학생들의 세계지역에 대한 선호도 비교연구로 추진될 것이다.

7) 실제로 행동주의 지리학에서는 늘 평가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즉, "실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또는 "그런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등의 질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중요하다.

8) 이 학생은 지리교육과의 학생으로, 한국지역에 대한 정보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지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학생이었다.

참고문헌

김보미, 2003, 경관인지를 활용한 지역학습 내용구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주희, 2005, 부산시 고등학생의 공간인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한, 1988, 아동의 공간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열, 1977, 거주선호의 mental map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애, 1996, 초·중·고 학생들의 공간인지와 인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경식, 2003, "한국교원대생들의 지리적 지식과 거주선호의 지도화에 관한 연구", 한균형박사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제3부, 11-22.

Burnett, P., 1976, Behavioral Geography and the Philosophy of Mind, in Golledgeand Rushton Ed., *Spatial Choice and Spatial Behavior*, Ohio State Univ. Press, 23-43.

Cadwallader, M., 1996, *Urban Geography*, Prentice Hall, N.J., 192-194.

Gould, P. and R. White, 1974, *Mental Maps*, Penguin Books, 45-7.

Hardwick, S. W. and D. G. Holtgrieve, 1996, *Geography for Educators; Standards, Themes, and Concepts*, Prentice-Hall, N.J, 299-324.

Lowenthal, D., 1961, Geography, Experience, and Imagination: Towards a Geographical Epistemology, *Annals of the A.A.G.*, 51, 241-260.

Perrons, D., 2004. Understanding Social and Spatial Divisions in the New Economy, *Economic Geography*, 80, 45-61.

Pocok, D. and R. Hudson, 1978, *Images of the Urban Environment*, The Macmillan Press, New York, 64-67.

최초투고일 2005. 02. 28.
최종접수일 2005. 03. 26.

교신 : 주경식, 363-791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ksjoo@knue.ac.kr, 043-230-3603)
Correspondence : Kyung-Sik Joo, ksjoo@knue.ac.kr